

행동하는 혁신가... 대규모 M&A 등 '글로벌 롯데' 고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어떠한 상황에도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실행력이 중요하다. 새로운 시대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롯데그룹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 혼란한 국제 정세 등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까지 겹치면서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할 것인지 기업들의 고민이 짙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불확실한 요인 속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강한 실행력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 바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신격호 명예회장 '현장경영' 계승
일진머티리얼즈 등 M&A 진두지휘
혁신 통한 기업가치 향상 집중

◆ 말 보다 행동...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그룹 성장 도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955년 2월 14일 신격호 전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1977년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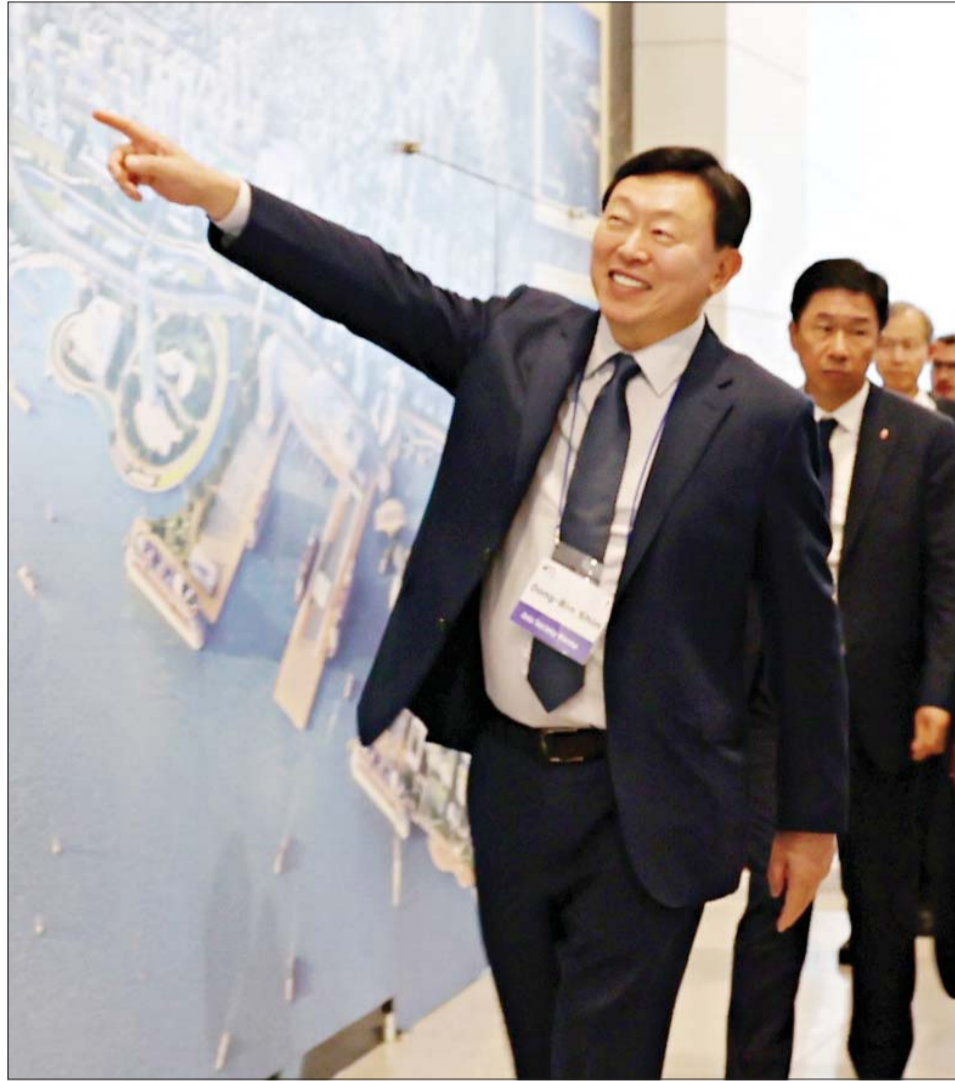
신 회장은 학위 취득 후 다양한 기업 환경 경험을 통해 역량을 쌓아올렸다. 1988년까지 약 7년 간 일본 노무라 증권 런던 지점에서 근무를 시작으로 일본 롯데상사를 거쳐 호남석유화학에 상무로 취임했다.

이후 1995년 롯데그룹 기획조정실 부사장을 지내다 2년만에 롯데그룹 부회장에 오르면서 사실상 신격호 전 명예회장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4년부터 정책본부장을 겸임하면서 케이피케미칼, 한화마트, 우리홈쇼핑, 하이마트 등을 인수하며 롯데그룹의 덩치를 키웠다.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언론 앞에 자주 나서지 않아 조용한 성격으로 평가받아 왔다.

재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에 대해 “조용하고 치밀한 '컨설턴트' 타입의 경영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라며 “주로 직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고, 많은 말을 하기보다 수치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경영전략을 짠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잔잔한 품속에는 사업 성공을 위한 열정과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신 회장은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회사 성장을 이끌었다. 신 회장의 강력한 추진력은 롯데그룹의 적극적인 인수합병 과정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성장 가능성을 본 분야라면 주저하지 않은 것.

특히 신 회장은 2010년 수십 차례 인수합병을 진행해 롯데그룹을 재계서열 5위로 성장시켰다.

2021년에는 롯데쇼핑이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에쿼티와 공동으로 국내 휴먼테리어 업계 1위 기업인 한샘을 인수했다. 롯데쇼핑이 이 사모펀드에 출자한 금액은 약 3000억원이다.

이후 2022년에는 국내 애플의 구리 소재인 동박을 생산하는 1위 기업 일진머티리얼즈 지분의 53.3%를 약 2조7000억원에 인수했다. 롯데케미칼이 전기차 소재 관련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뒤 처음으로 나온 공격적인 인수합병 행보였다.

그동안 롯데가 한번도 해보지 않은 바이오 산업 분야에도 거침없이 도전했다.

2022년 5월에 바이오 사업 진출을 선언하며 미국 제약회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쿼프의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 생산공장을 2000억 원에 인수했다.

◆ '직접 보고 확인한다'... 아버지에게 이어받은 현장 경영 정신

“아버지(고 신격호 명예회장)로부터 '현장에 가서 자기 눈으로 보라', '보고만 듣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신 회장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격호 명예회장이 물려받은 '현장경영 정신'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신동빈 회장은 지난 19일 2024 하반기 'VCM(옛 사장단 회의)'에서 경영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밝힌 뒤 나흘 만에 직접 현장 경영에 나섰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캠퍼스 착공식, EVSIS 스마트팩토리 청주 신공장 방문, 베트남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그랜드 오픈행사 등에 참석한 바 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의 지속가능성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높이기에도 속력을 낸다. 신 회장은 그 비법으로 혁신을 강조했다.

“2024 하반기 롯데 VCM(옛 사장단 회의)”에서도 신 회장은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 ▲글로벌 사업에서의 안정적 수익 창출 ▲미래성장을 위

한 고부가 사업 확대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신 회장은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의 저서 '혁신자의 딜레마'를 인용하며 “미래를 위해 혁신하지 않는 기업은 결국 선도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다. 기존 사업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AI·IoT 등 신성장동력 발굴

신 회장이 제시하는 혁신은 신성장 동력의 발굴 노력과 맞닿아 있다.

신성장 동력의 일환 중 하나로 주목되는 것은 스타트업계 지원이다.

롯데그룹은 스타트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2024 롯데 인베스트먼트 쇼케이스'를 마련했다.

해당 쇼케이스는 롯데 경영진이 유망 스타트업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이들과 신규 사업을 도모하고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한 행사다.

해당 행사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제작, 사물인터넷(IoT) 기반 초소형 점포, 자율주행 로봇,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16곳이 참여했다.

신 회장은 “유망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것은 새로운 성장의 씨앗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신성장 동력을 위한 행보로 인공지능 분야에도 집중하고 있다. 계열사 최고경영진과 함께 인공지능 전략을 논의하며 창의, 혁신을 위한 의지를 밝힌 것.

스타트업 지원 등 성장동력 발굴 바이오·이차전지 신사업 도전 그룹 지속가능성장 토대 마련

실제 신 회장은 지난 3월 7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AI(인공지능)+X 시대를 준비하는 롯데'를 주제로 열린 '2024 롯데 CEO AI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AI+X는 커머스, 디자인, 제품 개발, 의료,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신 회장의 이같은 진취적인 경영활동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경영 철학으로부터 이어 왔다는 평가다. 신 명예회장의 혁신과 현장 경영에 이어 신 회장의 강력한 실행력이 지금의 '대' 롯데가 국내 기업 중 산업분야의 선두주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이유다.

/최빛나·안재선 기자 vitna@metroseoul.co.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20년 11월 롯데정밀화학 울산공장을 방문해 배기가스 정화용 자동차 세라믹 필터를 살펴보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신격호 명예회장 추도 행사에서 헌화하고 있다. /롯데그룹